



전주교대 음악교육과 정기연주회 수익금 전액 기부

전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관현악단이 지난 5일 열린 제22회 정기연주회 수익금 전액을 우간다 교육사업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김상한 교수(윤리교육과)를 통해 우간다 교육콘텐츠 제작 및 기자재 구입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태현 회장(음악교육과 3년)은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나아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나눔 콘서트가 관현악단의 좋은 전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은아 교수는 “관현악단 정기연주회를 찾았던 사람들은 더 본에 우리 학생들이 문화와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전주교대 관현악단은 음악교육과 재학생 40명으로 구성, 연주와 공연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정은성 기자

“4차산업혁명 시대 리더로 첫 발걸음”

고창교육지원청-전북대 혁신공유대학사업단, 업무협약 체결

고창군이 26일 전북 대학교 빅데이터 혁신 공유대학사업단과 고 창교육지원청간의 디 지털 신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빅데이터 혁신공유 대학 사업단은 교육부 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의 실행 프로젝트로 국가 수준의 빅데이터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고창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빅데이터 관련 실무중심의 강의와 학생 현장 실습 캠프 진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 방학 중 28일간 전북대학교에서 빅데이터 관련 현장실습 및 캠프를 개최한다.



캠프는 다양한 놀이를 통한 데이터 활용능력 및 자료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이 우리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창군을 비롯한 전북대 학교, 고창교육지원청이 함께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농기센터, 지리산처럼 가공상품 최우수상 수상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남원시 지리산처럼 (대표 정정은)이 농촌진흥청이 농산물가공 상품생산 및 판매 경영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2022 가공상품 마케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가공상품의 개발·판매로 농가소득 및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한 농업경영체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농진청은 자체적 축전을 받은 8개 소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지리산처럼은 이번 수상으로 농촌진흥청장상과 상금 150만원이 수여받게 되었다.

지리산처럼은 현재 행복한 정은씨 브랜드로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참깨, 들깨 재배와 수매를 통해 식용유지, 밀키트 등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 및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최우선하는 Health & Beauty 영역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정정은 대표는 “지역자원(농산물, 인적자원 등)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스마트팜을 통해 참깨 R&D 투자를 마련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의회, 4대 폭력 예방·청렴 교육 실시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는 25일 최북미술관 다목적 영상실에서 군의회 의원과 의사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및 부부애·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폭력 및 부부애예방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한국성평등교육진흥원 정은숙 강사의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이성영 변호사의 행동강령 및 이해 증명방지법 등 부부행위 및 청렴문화의 이해를 통한 공정한 공직 리더를 주제로 한 청렴교육 강의가 이어 진행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어린이 견학·체험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26일 오전 해피맘 어린이집(지도교사)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방정사 견학 및 안전체험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소방서 소개 및 안전체험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뜻 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고자 실시되었으며, 주요 견학내용은 소방차량 소개 및 체험 청사 내부 및 소방차량 차고지 등 견학, 사진촬영 등이다.

백성기 소방서장은 “소방서 견학 및 안전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여성새일센터, 취업자 간담회 개최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25일, 취업여성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사업으로 취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취업 여성들의 개별상담을 통해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취업자 간 그룹 상담을 통해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취업 여성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삶의 훈련을 찾아주고자 힐링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개성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고 직접 손으로 바느질하여 가죽가방 만들기를 함께 진행했다.

이날 한 여성 취업자는 “평소 가죽공예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만 했었는데 직접 참여해 보니 즐겁고 뿌듯함이 느껴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인근 센터장(교육체육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취업자와 새일센터가 서로 돈독해지는 기회가 되어 취업자와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레티감홍, ‘자랑스러운 전북인 나눔 대상’ 수상

남원시는 다문화가정인 레티감홍 씨가 지난 25일,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개최된 제42주년 전북도민의 날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전북인 나눔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레티감홍 씨는 9년전 남편과 사별하였음에도 홀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2015년부터는 노인시설을 방문해 밀벗, 미사지 및 빨래 봉사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후원금 마련을 위한 음식판매 봉사에도 참여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김강·봉사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나눔을 실천하고 2020년 수해피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정비·농지복구 봉사활동에도 동참해 복구지원에 힘써 왔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강한 책임감으로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다양한 봉사와 따뜻한 헌신으로 나눔을 실천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온 레티감홍 씨의 삶이 이번 수상으로 인해 조명되어 진실로 기쁘다면서, 시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문화가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결혼이민자가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 장학금 200만원 기탁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장은 지난 24일 부안군 균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하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금번 기탁은 김광수 의장이 2022년 전리복도 한우경진대회 미경산우(임신하지 않은 암소)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수상금 200만원 전액을 부안군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기부하여 더욱 의미가 있다.

김광수 의장은 “부안군의 장학사업은 군민·기업·출향민 등이 기부한 금액으로 전국 최초의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고 이에 금번 한우경진대회에서 받은 수상금을 부안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생각하며 재단에 기쁜 마음으로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 균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한우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매우 축하드리고 수상금 전액을 기부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김제시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정책콘서트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6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40명을 대상으로 전남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찾아 여성정책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는 “김제시 여성정책 활성화 여성친화 공동체 조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타 지역단체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2020년 행정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충남 보령 성주4리 막방마을은 서광수 이사장을 초청하여 마을주민들의 인형극 공연을 통해 성차별을 극복한 성평등 마을 이야기 강연과 전 청와대 비서관 윤나실 강사의 여성친화도시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강연으로 여성의 눈으로 일상의 차별이나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하고 여성들의 주체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를 주제로 소그룹 활동을 진행하여 여성친화정책 발굴 및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실천의지 결집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희임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정책 콘서트를 통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모든 정책에 여성의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차별없는 김제시를 만들어가는데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교대, ‘시민과 함께 생태 하천 교육’ 마무리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준)는 지난 9월부터 진행한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생태 하천 교육이 8회차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생태 하천 교육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생태 하천협의회와 함께 주최하고, 재학생과 전주시민의 생태 시민성 함양을 위해 기획됐다.

생물의 종류와 생명공동체를 이해하는 ‘하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전주천에 대한 이해를 듣는 ‘전주천 생태와 어류상’, ‘전주하천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등 8개 주제로 매주 수요일 실시했다.

생태 하천 교육 책임을 맡은 김현태 교수(과학교육과)는 “대학의 적극적인 환경 교육으로 우리 하천을 가끼이하고 생태적 틀을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도내장애인단체들, 장애인 인권 거리캠페인 벌여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소장 김양옥)와 전주시지소(지소장 이영재), 전주시 장애인복지협회,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이 협동으로 지난 25일 전주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일원에서 ‘장애인 인권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김양옥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을 비롯, 황의옥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영재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지지소장, 이수정 전북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장, 임병오 장애인성폭력예방대책위원장 등 내빈들과 장애인·시민 60여명이 참여해 플랜카드 홍보, 전단지 배부, 피켓 시위, 구호 제창 등을 펼쳤다.

김양옥 소장은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내 고장을 만들어 장애인의 삶이 풍요로운 사회, 장애인 복지가 향상되어 장애인의 천국을 만드는 일에 당사자들이 앞장서자”고 역설했다.

/김재훈 기자